

WEBVTT

00:00:09.112 --> 00:00:11.747

여러분, 안녕하세요?  
김종희입니다.

00:00:12.524 --> 00:00:18.679

우리는 이 시간에 황석영의  
대하 장편 소설 장길산에 대해서

00:00:18.704 --> 00:00:21.222

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

00:00:32.244 --> 00:00:35.062

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.

00:00:35.537 --> 00:00:41.900

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학 평론가로서  
동시대의 작품 가운데

00:00:42.641 --> 00:00:46.430

어느 한 편을 들어서  
대표작이라고 하자면

00:00:48.727 --> 00:00:51.512

누구를, 무슨 작품을 말하겠느냐?

00:00:52.255 --> 00:00:53.847

그런데 이걸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,

00:00:53.872 --> 00:00:56.670

그중에 하나를 들어야  
하는 것이기 때문에.

00:00:56.695 --> 00:01:02.603

그런데 저는 그런 경우에  
황석영의 장길산을 이야기합니다.

00:01:04.832 --> 00:01:12.407

이 작품은 조선조 숙종 연간에 있었던  
장길산 반란 사건.

00:01:13.672 --> 00:01:18.314

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 
극적 장길산 부대.

00:01:18.645 --> 00:01:21.234

극악무도한 도적, 이런 뜻이죠.

00:01:22.233 --> 00:01:30.262

그러니까 오래 전의 이야기를  
하고 있지만

00:01:31.015 --> 00:01:33.170

실제로 이 작가가  
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

00:01:33.195 --> 00:01:37.984

그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 
오늘 이 현실 속의 이야기죠.

00:01:38.613 --> 00:01:43.359  
이 작품은 1970년대 중반에서  
80년대 중반까지 쓰였는데

00:01:43.730 --> 00:01:47.910  
그것은 이틀테면  
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죠.

00:01:48.397 --> 00:01:50.643  
그 시기에 이 작품을 연재하면서

00:01:50.668 --> 00:01:55.240  
한국일보의 네 번의 연재 중단을  
당하곤 했는데

00:01:56.664 --> 00:01:59.927  
중간 제목들이 모반,  
이런 것들이예요.

00:01:59.952 --> 00:02:01.616  
그러니까 군부 정권에서 볼 때는

00:02:01.641 --> 00:02:06.623  
이 작품이 현실에 대한  
저항의 의지로 읽히는 거죠.

00:02:07.091 --> 00:02:09.149  
그런데 작가 황석영은  
이렇게 말했습니다.

00:02:09.174 --> 00:02:12.656  
나도 모르게 신들린 뜻이  
이 작품을 썼다.

00:02:12.878 --> 00:02:16.575  
그래서 이 작품을 쓰고 있을 때  
황석영이

00:02:16.600 --> 00:02:20.490  
정말 작가다운 작가가 아니었겠느냐,  
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

00:02:20.677 --> 00:02:23.450  
황석영의 본명은 황수영.

00:02:23.631 --> 00:02:27.011  
황수영보다는 황석영이  
좀 작가 같죠.

00:02:27.036 --> 00:02:31.236  
1943년생, 만주 장춘에서  
태어났습니다.

00:02:31.261 --> 00:02:39.634  
여러분, 장춘이라고 하는 곳은  
지금 중국의 마지막 황제,

00:02:39.659 --> 00:02:44.101  
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의  
황궁이 있는

00:02:44.575 --> 00:02:47.254  
위만 황궁 이렇게 부릅니다.

00:02:48.533 --> 00:02:51.580  
장춘, 길림성의 성도인데

00:02:51.905 --> 00:02:57.123  
일제 강점 시대에는 이곳의 이름이  
신경이었습니다, 새로 조성된 수도.

00:02:57.148 --> 00:02:59.786  
그래서 일본이 여기에  
만주국을 세우고

00:02:59.811 --> 00:03:02.519  
푸이를 거기에 데려다 났던 것이죠.

00:03:02.861 --> 00:03:05.371  
일본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 
중국 사람들이

00:03:05.396 --> 00:03:07.656  
이름을 장춘으로 바꿨습니다.

00:03:07.837 --> 00:03:09.667  
그렇게 이름을 바꾼 곳이 또 있죠.

00:03:09.692 --> 00:03:13.964  
이러면 일제 강점기의  
대륙 병참 기지였던

00:03:15.180 --> 00:03:19.898  
요령성의 봉천이 지금은  
심양으로 바뀌었죠.

00:03:20.134 --> 00:03:24.557  
그리고 압록강 건너에 있는  
안둥이 단둥으로 바뀌었습니다.

00:03:24.582 --> 00:03:27.796  
일제식 이름을 바꾼 거죠, 중국이.

00:03:27.821 --> 00:03:32.021  
그 장춘에서 황석영이 태어났고  
해방 이후에 월남했는데

00:03:32.437 --> 00:03:38.056  
고교 시절 입석부근으로 사상계  
신인문학상을 통해서 등단했습니다.

00:03:38.081 --> 00:03:42.133  
그런데 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고  
밖으로 돌았기 때문에

00:03:42.158 --> 00:03:44.804  
고교 시절이라기보다 고교의 나이

00:03:44.829 --> 00:03:46.884  
이렇게 말하는 게  
더 나을지도 모르죠.

00:03:47.170 --> 00:03:53.261

1970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 
단편 탐과 희곡 환영의 뜻이

00:03:53.286 --> 00:03:57.031

각각 당선되어서 작품 활동을  
本格화했습니다.

00:03:59.473 --> 00:04:03.322

6.25 동란, 4.19 혁명,  
5.16 군사 쿠데타,

00:04:03.347 --> 00:04:05.529

80년 광주 민주화 운동.

00:04:05.709 --> 00:04:08.234

이 모든 과정을 겪은 작가고

00:04:08.476 --> 00:04:13.023

1967년 베트남 전쟁에 또 실제로  
참전하기도 해서

00:04:13.097 --> 00:04:16.340

격변의 현장에서  
반세기를 보냈습니다.

00:04:16.365 --> 00:04:20.039

이처럼 한국 현대사의 현장  
가까운 곳에서

00:04:20.064 --> 00:04:23.398

주요한 역사적 장면들을 목격한 그는

00:04:23.423 --> 00:04:28.433

자신이 체험한 그 역사적 사실들을  
다양한 방식의 소설로 썼습니다.

00:04:29.046 --> 00:04:34.518

70년대 본격적인 작품 활동에  
돌입해서 객지나 한씨연대기.

00:04:34.562 --> 00:04:36.679

객지는 한국 문학에서 최초로

00:04:36.704 --> 00:04:40.557

노동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 
작품이다,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.

00:04:40.582 --> 00:04:42.753

한씨연대기는 분단 문제를  
포함하고 있고

00:04:42.778 --> 00:04:47.703

삼포 가는 길은 산업화 시대의  
문제를 얘기하고

00:04:47.728 --> 00:04:50.763

무기의 그들은 월남전의 문제를  
보여줍니다.

00:04:50.788 --> 00:04:56.094

그러니까 황석영이 살아온  
그 시대의 여러 격변의 현장이

00:04:56.119 --> 00:05:00.566

다 그의 작품, 그의 소설로  
치환되어서 나타났다,

00:05:00.591 --> 00:05:02.055

이렇게 말할 수 있죠.

00:05:03.717 --> 00:05:08.108

80년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쳐서

00:05:09.003 --> 00:05:12.884

베를린에서 열린 제3세계 문화재  
참가를 계기로

00:05:12.909 --> 00:05:19.546

황석영은 실천적인 작가로  
또 통일 운동가로 변모합니다.

00:05:19.571 --> 00:05:26.061

1989년에 범민련 대변인 자격으로  
방북을 해서

00:05:26.853 --> 00:05:30.609

한국으로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 
5년간 독일에서 망명 생활을 했고

00:05:30.634 --> 00:05:35.814

그 이후에 국내에 들어와서  
5년간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.

00:05:36.995 --> 00:05:43.992

그와 같은 옥중 생활에도 불구하고  
출감한 이후에 왕성한 창작열을 보여서

00:05:44.017 --> 00:05:50.726

오래된 정원, 손님, 심청 같은  
작품을 쓰고 여러 상도 받았습니다.

00:05:51.317 --> 00:05:55.517

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의를  
우리말로 번역해서

00:05:55.542 --> 00:05:59.147

황석영 역 삼국지도 있습니다.

00:06:00.580 --> 00:06:04.218

장길산이라고 하는 작품은  
10년 넘도록

00:06:04.243 --> 00:06:07.447

한국일보에 연재된 역사 소설인데

00:06:07.472 --> 00:06:11.274

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 
현실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.

00:06:11.496 --> 00:06:16.356

그래서 홍명희의 임궫정,

박경리의 토지 이후에

00:06:19.849 --> 00:06:23.475

김주형의 객주,  
조정래의 태백산맥 등과 더불어서

00:06:23.500 --> 00:06:28.222

민중의 역동적인 힘과 의지,  
집단 의식을 부각시키는

00:06:28.247 --> 00:06:30.768

그와 같은 소설군을 이루게 됩니다.

00:06:32.094 --> 00:06:38.907

그래서 1970년대에  
황석영이 썼던 이 소설은

00:06:40.133 --> 00:06:45.080

이전에 역사 소설들이 왕조 중심으로

00:06:45.321 --> 00:06:50.742

영웅주의 사관에 의거해서  
쓰였던 것들과는 달리 민중 사관.

00:06:51.338 --> 00:06:55.485

황석영의 장길산에 드러나는  
장길산이라고 하는 인물은

00:06:55.510 --> 00:07:01.386

비천한 출신 성분을  
가졌어요.

00:07:02.109 --> 00:07:05.357

그래서 소설 전체도  
장길산이라고 하는 인물의

00:07:05.382 --> 00:07:07.624

영웅적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 
아닙니다.

00:07:07.649 --> 00:07:10.990

장길산을 매개로 해서  
다양한 세력들의 연합에 의한

00:07:11.015 --> 00:07:17.503

민중적 힘의 가능성  
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

00:07:20.937 --> 00:07:25.092

이를테면 객지에서부터  
장길산에 이르는

00:07:25.117 --> 00:07:27.499

그리고 그 이후에 장편 소설들에  
이르는

00:07:27.524 --> 00:07:30.558

황석영의 작품 세계라고 하는 것은

00:07:31.470 --> 00:07:35.228

근본적으로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

세계를 가지고 있고

00:07:35.253 --> 00:07:39.453

초기에 노동 현장의 문제,  
노동자의 문제에서 출발했다가

00:07:39.478 --> 00:07:41.411

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

00:07:41.436 --> 00:07:47.799

그리고 역사와 세계 속의  
문학의 지위에 관한 생각으로까지

00:07:47.824 --> 00:07:50.670

확장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.

00:07:51.415 --> 00:07:57.416

삼포 가는 길에 아주 재미있는  
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.

00:07:57.441 --> 00:08:00.098

백화라고 하는 술집 여자가 나오는데

00:08:00.405 --> 00:08:06.026

이 여자와 함께 고향을 찾아가지만  
고향은 이미 없어진 이런 상황이죠.

00:08:06.160 --> 00:08:13.343

그런데 길동무, 그러니까  
노정의 소설, 길 위의 소설로서

00:08:14.129 --> 00:08:19.559

함께 시대를 공유하던 사람과  
헤어지면서

00:08:19.584 --> 00:08:24.430

백화는 내 본명은 누구라고 하는 것을  
밝혀줍니다.

00:08:24.615 --> 00:08:31.439

그러니까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가  
본명을 밝혀주고 떠난다고 하는

00:08:31.464 --> 00:08:36.127

이런 마지막 재미있는 장면을  
보여줌으로써

00:08:36.152 --> 00:08:43.460

산업화 사회 속에서 민중들의  
마음의 향방, 소통의 문제

00:08:43.485 --> 00:08:45.992

이런 것을 잘 드러낸 소설입니다.

00:08:46.192 --> 00:08:50.392

무기의 그늘이라고 하는 소설은  
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했고

00:08:51.048 --> 00:08:55.060

그 이후에 오래된 정원이나 손님,  
심청 같은

00:08:55.085 --> 00:08:59.590

이런 장편 소설들은 그것들대로  
다 가치가 있는데

00:08:59.941 --> 00:09:03.367

제 생각에는 장길산이 너무도 강렬해서

00:09:04.739 --> 00:09:09.164

황석영 하면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이  
장길산이라고 하는 소설이다,

00:09:09.189 --> 00:09:11.454

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

00:09:12.147 --> 00:09:16.485

장길산이라고 하는 10권에 이르는  
대하 장편 소설은

00:09:16.510 --> 00:09:20.710

먼저 민중 주체의 역사를 추구합니다.

00:09:20.940 --> 00:09:31.311

그러니까 장길산 속에 광대나 노비나  
천민, 중인, 신흥상인,

00:09:31.336 --> 00:09:34.843

비판적인 선비 세력, 승려 세력  
또는 해상 세력.

00:09:34.868 --> 00:09:37.931

이런 다양한 신분 계층들이  
포함되어 있지만

00:09:38.635 --> 00:09:42.094

이들은 각기 자기의 무게 중심을  
가지고 있고

00:09:42.119 --> 00:09:45.776

장길산은 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 
연결 고리 같은 역할을 하죠.

00:09:45.801 --> 00:09:49.594

그래서 이런 민중들의  
힘의 연합에 의해서

00:09:49.619 --> 00:09:53.819

새로운 세상을 꿈꾸는,  
새로운 대동 세상을 꿈꾸는.

00:09:54.037 --> 00:09:57.694

그리고 그것이 왕조를 바꾸는  
역성혁명이 아니라

00:09:57.719 --> 00:10:01.435

민중들이 사는 그런 세상에 대한  
꿈을 보여주는

00:10:01.460 --> 00:10:05.008

이런 민중 주체의 역사관을 가진  
소설이다.

00:10:05.831 --> 00:10:08.467

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작품에서  
우리가 주목할 것은

00:10:08.492 --> 00:10:15.883

현재의 전사로서의 과거가 단순히  
지나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.

00:10:16.618 --> 00:10:21.020

그러니까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은  
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

00:10:21.299 --> 00:10:24.202

그리고 조선조 숙종 연간에 있었던  
이 사건이

00:10:24.227 --> 00:10:29.432

장길산 부대의 민란,  
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

00:10:29.457 --> 00:10:37.221

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 
하나의 저항 정신의 표본이요,

00:10:37.246 --> 00:10:41.726

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 
보여주는 것입니다.

00:10:42.110 --> 00:10:49.050

민주화 또는 투쟁과 저항 이런 개념이  
이 소설의 전편을 관통하고 있다,

00:10:49.075 --> 00:10:50.826

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.

00:10:51.354 --> 00:10:53.553

이 속에는 민중적 유토피아.

00:10:53.578 --> 00:10:57.480

그러니까 힘없고 어렵게 살아가는  
사람들이 무엇을 꿈꾸는가 하는

00:10:57.505 --> 00:11:02.629

이야기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.

00:11:02.654 --> 00:11:10.072

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 
추구하는 미륵 신앙,

00:11:10.097 --> 00:11:12.035

미륵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

00:11:12.060 --> 00:11:14.800

하나의 사회 운동을 이루는 모습을  
보여주는데

00:11:14.825 --> 00:11:17.578

미륵이라고 하는 것은,  
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,

00:11:17.603 --> 00:11:19.600

아직 오지 않은 부처님이에요.

00:11:19.625 --> 00:11:22.391

앞으로 올 부처님을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죠.

00:11:22.416 --> 00:11:31.870

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초월자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,

00:11:31.895 --> 00:11:33.968

여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

00:11:35.945 --> 00:11:38.899

가난과 역병에 쓰러져 가는 백성들이

00:11:38.924 --> 00:11:42.268

다시 환호하며 춤추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

00:11:42.513 --> 00:11:44.656

이들이 힘을 모은다는 것이다.

00:11:44.681 --> 00:11:51.077

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진인이라고 하는 도참비기설의

00:11:51.251 --> 00:11:54.847

진인, 초월자의 출현을 부정하는 이런 방식.

00:11:54.872 --> 00:12:03.145

민중에 바탕을 둔 이와 같은 형식의 정신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

00:12:03.871 --> 00:12:09.994

전통적인 이야기를 회복해서 이를테면 장산곶 매의 이야기라든지

00:12:10.153 --> 00:12:16.643

또는 곳곳에 전설적인 민요, 민담 같은 것을 활용하는데

00:12:16.806 --> 00:12:21.353

홍길동전이나 수호전 같은 이런 의적 이야기를 수용하면서도

00:12:21.378 --> 00:12:26.743

이것을 과거에 존재하는 모습으로 그리지 아니하고

00:12:26.768 --> 00:12:30.161

현재적 의미로 작품 속에서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.

00:12:30.186 --> 00:12:33.423

역사 소설에서 이야기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

00:12:33.448 --> 00:12:39.363

곧 시간의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 
하는 것을 소설을 통해 보여준

00:12:39.388 --> 00:12:43.062  
하나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

00:12:44.675 --> 00:12:51.190  
우리가 이렇게 장길산이라고 하는  
작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는데

00:12:52.226 --> 00:12:55.287  
지금 제가 말씀드린  
이런 의미들 외에도

00:12:55.312 --> 00:12:59.255  
이 소설은 무지 재미있습니다.

00:12:59.438 --> 00:13:02.446  
한 번 손에 들면 손에서 놓기  
어려울 정도로

00:13:02.713 --> 00:13:05.227  
어떻게 이런 이야기꾼이  
있을 수 있을까 하는

00:13:05.252 --> 00:13:07.146  
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.

00:13:07.523 --> 00:13:11.138  
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 
여기에 이르도록

00:13:11.163 --> 00:13:15.963  
모두 20편의 소설들을  
살펴보았습니다.

00:13:17.314 --> 00:13:20.316  
한국 문학을 대표한다고  
할 만한 소설들

00:13:20.341 --> 00:13:22.746  
그러나 여기에서 아직 우리가  
이야기하지 못한

00:13:22.771 --> 00:13:25.051  
좋은 작품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.

00:13:25.358 --> 00:13:29.303  
그런데 이 20편의 소설들 속에서  
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은

00:13:29.328 --> 00:13:33.528  
이 소설들이 우리가 살아온  
삶의 이야기들이고

00:13:33.553 --> 00:13:38.456  
그것의 가장 빛나는 대목이거나  
의미 깊은 대목이고

00:13:38.795 --> 00:13:43.721  
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

영향을 미치는 교훈

00:13:43.905 --> 00:13:47.530

그리고 글 읽기의 재미,  
문체의 다채로움.

00:13:47.555 --> 00:13:51.755

이런 교훈과 재미를 함께 주는  
그와 같은 문학이었다.

00:13:51.780 --> 00:13:55.249

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설들을  
함께 논의하고

00:13:55.274 --> 00:13:56.496

읽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

00:13:56.521 --> 00:14:07.746

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교양인으로서  
가져야 하고 누려야 하는

00:14:07.771 --> 00:14:13.776

그와 같은 문화적 수준을 담보하는  
일이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죠.

00:14:14.175 --> 00:14:18.601

그 속에 건전한 상식과 균형 잡힌  
교양이 있는 사람.

00:14:19.227 --> 00:14:24.156

여러분, 동양 문화권의 군자라고  
하는 것이 어떤 것이 었나요?

00:14:24.357 --> 00:14:27.625

이것은 학식과 인품을 함께  
갖춘 사람.

00:14:27.807 --> 00:14:31.680

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한 상식을  
가지고 살면서

00:14:31.705 --> 00:14:35.945

동시에 우리 속의 건전한 교양  
이런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

00:14:36.250 --> 00:14:38.235

그런 문화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

00:14:38.260 --> 00:14:44.167

우리가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 
확보할 수 있고

00:14:44.321 --> 00:14:47.824

그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다고 하는  
그런 것입니다.

00:14:48.041 --> 00:14:49.730

좋은 작품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

00:14:49.755 --> 00:14:54.313

여러분 인생의 지리책을

보는 것입니다.

**00:14:54.338 --> 00:14:59.839**  
어느 곳에 험한 태산 중정이 있고  
어느 곳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

**00:15:00.363 --> 00:15:05.815**  
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그 길씨의  
풀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인가,

**00:15:06.140 --> 00:15:07.332**  
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

**00:15:07.357 --> 00:15:13.450**  
바로 문학 속에, 소설 속에 있다고  
말할 수 있겠습니까.